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는 지난 15일 광주, 전남·북 소재 5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200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을 치렀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주)자연, 생활한복 5천벌 기증



이동한복 생산업체인 (주)자연(대표이사 허호옥)은 지난 15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와 협약식을 맺고, 4억6천만 원 상당의 아동·성인용 생활한복 5천여벌을 기증했다.

전남도청 공무원 친절서비스 체험 교육



전남도청 공무원 46명은 지난 15일 114생활정보기업 (주)코이드 전남본부(본부장 고효점)에서 친절서비스 현장 체험 교육을 했다. (코이드 전남본부 제공)

농협 광주고객센터 MBA과정 수료식



농협 고객지원부 광주고객센터(센터장 이종기)는 지난 15일 센터에서 '제1회 농협 고객센터 MBA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농협 광주고객센터 제공)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 장동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계장

“소비자가 음식 알고 먹을 권리 보장돼야”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고 먹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된 음식점 업주 등에게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 장동석(53) 계장은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업주는 물론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하게 되면 찬반 의견은 나눠지게 돼 있다”며 “먹을 거리에 대해 예민한 우리나라 사람들인 만큼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줘 음식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홍보는 확실히 돼 있지만 많은 음식점 업주들은 익숙치않은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장 계장은 업주는 물론 시민들도 정확한 표시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정착 속도가 빨라진다는 판단이다. “많은 업주들이 국내산 쇠고기를 표시할 때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만 명시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한우·육우·젓소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산-한우’나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전국 단체장회의 부회장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이 16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클럽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민선 4기 공동회장단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협의회는 기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북한 축구대표 정대세

‘독도는 우리땅’ 애창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이자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재일교포 정대세(24·가와사키 프론탈레)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정대세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해 “아, 정말 복잡한 마음이다. 잘 해결돼서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정대세는 이어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애창곡으로 ‘독도는 우리땅’을 꼽으며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실력을 직접 뽐내기도 했다.

비, 포브스에 또 이름 올려

휴대폰 마케팅 10대 스타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6)가 미국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Forbes)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비는 포브스가 ‘스타들의 휴대전화(10 Celebs And Their Cells)’라는 주제로 한 14일자 보도에서 ‘휴대전화 업체들이 내세운 대표적인 스타 10명’ 중 한 명으로 소개됐다고 16일 소속사 에이전트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내방

▲송영종씨(전라남도 투자정책국장) ▲홍석태씨(건실방재국장)



“5·18정신 헌법에 명시될”

민병로 전남대 교수 주장

제헌절(7월17일)을 앞두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반영하는 문구가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학자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남대 법대 민병로(44) 교수. 민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은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여당과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5·18기념재단은 민 교수의 주장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 지난해 3월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헌법에서 ‘솔로몬의 지혜’ 얻자

광주 고·지법 법관들 스터디 구슬땀

제6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우리 헌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법관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광주 법원의 ‘헌법연구회’는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근무하는 판사 10명이 매주 1차례씩 모여 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하며 공부하는 모임이다.
김관재(사건 원쪽) 광주고법원장에서부터 부장판사, 중견 판사, 3~5년 차 합의부 배석판사 등 선·후배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비록 법원장이라도 공부 주제와 관련해 ‘가우뚱한’ 해석을 내놓는다 싶으면 까마득한 후

배들로부터 맹공을 받는다.
이들이 매주 시간을 쪼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각자 맡고 있는 민·형사 재판에서 공정하고 명쾌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다. 모든 법률의 뿌리가 되는 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깊이 있는 재판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일반인들에게 헌법은 멀고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일상 생활과 사회적 현안 어디에도 헌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정웅씨 조선대에 작품 72점 또 기증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조선대에 작품 72점을 기증했다.
하 명예관장은 16일 조선대 총장실에서 전호중 총장에게 현대 중국화단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괘이종의 ‘축산’을 비롯해 북한의 공훈예술가 리경남의 ‘폭포’, 북한의 대표적인 유화화가 홍성철의 ‘해(해)’ 등 작품 72점을 기증했다. 기증 작품은 중국화 28점, 조선화 18점, 유화 26점이며 소재별로는

누드 16점, 풍경 32점, 정물 24점이다.
하 명예관장은 “조선대미술관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미술대학 학생들의 기량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며 “중국의 현대와 북한의 조선화와 유화, 재일작가의 작품 등이 고루 포함돼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하정웅(왼쪽)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16일 조선대 총장실에서 전호중(오른쪽) 총장에게 미술작품 72점을 기증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장남씨 차남 경태군 임두홍씨 3녀 미향양=19일(토) 낮 1시 친변로 사자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꿈에 그린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17회 동창회(회장 김용우) 월례회=17일(목) 오후 7시 일송정. 062-525-9977.
▲북성중 18회 동창회(회장 이태역)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삼원식당. 062-512-8662.
▲강진 도암 산정초교 2회 동창회(회장 김길숙) 산이모=19일(토) 오후 2시 광주 용봉지구 큰바다 해물탕. 062-515-3339.
▲북성중 19회 동창회(회장 손영환) 월례회=19일(토) 오후 7시 친

하일품. 062-376-3032.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 모임=19일(토) 오후 6시 광주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옆 대나무집. 062-671-8453.
▲재광 진도 고성중 동문회(회장 광기석) 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충장로5가 입구 서미정. 011-645-1758.
▲광주 승일고 21회 정기 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화정동 중앙병원 뒷편 칠성회관. 011-647-1345.

종친회

▲전주리씨 원풍대군파 양도공종회 광주 종친회(회장 리영신) 월례회의=17일(목) 오후 6시30분 종친회 회의실. 062-654-202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라네스터마케팅연구원 광주 세미나=23일(수) 오전 10시 상무지구 마스터스호텔. 02-766-9922.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호패선,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지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단. 019-277-0007.
▲광주향교 하계 한문 예절교육 무료 수강생 모집=7월21일~8월20일 1개월간. 하계방학초·중·고생 대상 오전·오후반, 사자소화·학여집·전자초·소화·사례관람·주역·서

예실기·전통생활교육, 교재 무료 배부. 062-672-7008, 7005.

▲트럼프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모집=누구나 환영. 첫 모임 21일(월) 오후 7시 대인동 제일식당. 017-661-0991.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 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 검정고사반, 한문반. 광안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사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준비하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한마음 장애인리활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꽁꽂이,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운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부음

▲정영의씨 별세 박병근(광성산업 대표·전 현대자동차 상무)·정민·정순·정미씨 모친상 신강재(서울 대아신협 이사장)·강 진(테레아 광주터미널집 대표)·이창환(서울 메디피어내과 의사)씨 빙모상=발인 1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최봉열씨 별세 용준·용식·용선씨 부친상 한상열·백선성·김철이·서영섭씨 부부상=발인 17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만중씨 별세 철형·현중·선미씨 부친상 김세인씨 부부상=발인 17일(목)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신익희씨 별세 영목(조선일보 발송과장)·성호(사업)·중호(수창테크 대표)·영순(시속) 부친상=발인 18일(금) 참단 보훈병원 1분향소. 062-973-9161.
▲정옥례씨 별세 조남진(사업)·

창식(대우DAT)·준식(나주시청·전 광주매일 기자)·수진(화순군청)·진후(Trimbie 차장)·인식(e조은차과원장)씨 모친상 유영국(사업)·배동진(전남도청)씨 빙모상=발인 18일(금) 화순 현대병원 장례식장. 061-370-4444.
▲최순구씨 별세 광은·영숙·윤희·문희씨 부친상 이백술·정창남씨 부부상=발인 18일(금)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김애순씨 별세 박승규·성규·길주·덕원·춘숙·영숙씨 모친상 이상근·민관식씨 빙모상=발인 18일(금)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들 모두 특별분양
(062)222-0201